



설교
조용목 목사
교단 정책위원장



졸업증서 수여
임종달 목사
목회대학원장



축도
최광덕 목사
교단 중경 총회장



축사
이용주 목사
사기독교교단협 대표회장



사회
윤기석 목사
교단 사무국장



대표기도
경기조 목사
총회 신학원 교수



학사보고
정용영 목사
총회 신학원 교학과장

총회신학교·목대원·신대원 졸업예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과 한 것” 체험하고 간증하길...

2016년도 총회신학교 제5회, 목대원 제8회, 신대원 제5회 졸업감사예배가 지난 11일(월) 오후 2시 신학원 대성전에서 드려져 땅끝까지의 복음전파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를 비롯 교수진 등 중진 목회자들과 성도, 축객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드려진 이날 예배는 교단 사무국장 윤기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총회신학교 교수 정기 조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은혜와 진리교회 영등포성전 아셀성가대의 찬양, 대학원 이사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고전 15:10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복음을 전파한 선교사들의 노고와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임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주의 종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졸업생들을 축복했다.

이어 교학과장 정용영 목사의 학사보고, 대학원 원장 임종달 목사의 학위수여, 상정수여,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이용주 목사의 축사가 있었다. 이 축사는 축사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주의 종으로서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졸업생들의 앞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축했다.

계속해서 재학생 대표 이순호 전도사의 송사, 졸업생 대표 김정애 전도사의 답사, 졸업생

대표 권경로 전도사는 학교에 기념품을 증정했다. 예배는 사회자의 광고, 최광덕 목사의 축도로 졸업감사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졸업생들은 그동안 기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어떤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총회목회대학원 졸업기념촬영



총회신학교 졸업기념촬영



정책위원장 수여



졸업증서 수여



아셀성가대의 찬양



“구원의 은총 속에 살게 해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외국인 성도 찬양의 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복된 한해 기원



은혜와진리교회(담임 조용목 목사) 수원성전 외국인선교회 주최 '2015 외국인 성도 찬양의 밤(Foreigner's Song Festival)'이 세계선교연합회 후원으로 지난해 12월 18일(금) 대성전에서 성황리에 열려 출연한 많은 외국인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성도들에게 가슴 뭉클한 은혜와 감동을 선물하였다. 이날 찬양의 밤은 선교회 회장 권영호 장로의 인사말과 기도예 이어 고현정 자매의 사회로 시종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진행되었다. 모든 출연자와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합창이 있는 후, 한테네스(한국, 태국, 네 팔, 스리랑카) 찬양팀과 글로리아관현악단의 특별찬양, 필리핀 로나 자매의 성경 암송, 기타 국가와 구역별 외국인들의 모국어와 우리말 찬송 등 150여 외국인 성도들이 나와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찬송을 불렀다. 이에 성도들은 뜨거운 박수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외국인 성도들을 격려해 주며 세해 더 굳센 믿음과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축복하였다.

‘주님 안에서 기쁨’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빌 4:4)

하나님께서 기쁨을 갖게 하는 자원을 풍부하게 주셨습니다. 그 자원을 활용하고 적용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육신이 건강하고 생활이 넉넉해도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상황이지만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뻐하며 사는 것이 현명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며, 기쁨의 이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갖게 되는 신령한 기쁨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말하면 들어주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혼자 예배하거나 가정이나 구역에 모여 예배하는 것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에 모여 예배하는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각처에서 생업에 힘쓰고 여러 활동을 하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데 그 기쁨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셋째,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갖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시간과 재능과 몸과 물질을 드려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기쁨은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넷째, 신령한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물의 존재 원인과 이유가 기록되었고 사람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계시된 말씀입니다. 영원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교훈하며 세상 종말과 그 후에 다가올 일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신령한 지식과 지혜의 보고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리를 듣고 깨닫는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다섯째, 복음을 전하는 기쁨,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는 것보다 더 선하고 훌륭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하여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면 우리가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행한 모든 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일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핍박 중에 갖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유대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대담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정죄를 받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영만을 열어 주셔서 충만한 기쁨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일곱째, 환난과 결핍 중에도 갖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할 3:17~19)라고 결핍 중에서의 기쁨을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 5:2~4) 하였습니다.

여덟째, 성령충만하여 갖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모여 성령강림을 기다리며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모인 곳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권능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뚜렷한 현상은 모두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의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자원에 믿음의 시추를 행하십시오. 깊이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서 솟아나는 원류를 끌어 내십시오. 이를 꺼내어 사용하십시오. 위에 열거한 모든 종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교단 2016년도 신년 첫 임원회

실행위에서 다루었던 사안에 대한 후속 업무처리



교단 2016년도 신년 첫 임원회가 지난 4일 신년하례예배 후 회의실에서 열려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총회장 진등용 목사 주재로 진행된 임원회는 서기 이인규 목사의 회원점명, 개회선언, 회의록 낭독, 총무보고가 이어졌다. 총무 김병목 목사는 총무보고에서 새해 첫 실행위에

서 다루었던 사안에 대한 후속 업무처리를 위해 준비상황을 전하고 각종 업무내용들을 보고했다. 이어 다음번 임원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으며 목사고시 일정과 총회신학교, 목대원 신입생 모집, 전국신학교 졸업 등을 점검하고 총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총회장의 지시사항이 전달되었다.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03-51 / 예금주 임종달

한국교회연합 2016년 신년감사예배

새로운 부흥과 성장 위한 재도약 기를 마련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은 지난 7일(목)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2016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회를 개최하고 새해에는 한국교회와 이바지하고 위상 실추를 Stop하고 턴업(Turn-Up)함으로써 새로운 부흥과 성장을 위한 재도약의 기를 마련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신년감사예배는 한국교회 지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만길 목사(한신 총회장)의 사회로 열려 송덕준 목사(예성 총회장)

의 기도, 양병희 목사(직전 대표회장)의 '모텔이 된 안디옥교회'라는 제목의 설교에 이어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윤광섭 목사(개혁국제 총회장), 민족복음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남궁선 목사(한영 총회장), '세계복음화 및 선교시를 위해' 유충국 목사(대신 부총회장), '분화 및 화원교단 단체를 위해' 심영식 장로(병세협 대표회장)가 각각 특별기도했다.

이어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가 신년인사를

전했으며, 김요셉 목사(총대 대표회장)가 신년축사를, 한영훈 목사(증경대표회장)가 신년 격려사를 각각 전한 후 김동엽 목사(통합증경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양병희 목사는 설교를 통해 "안디옥교회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가 되어 이 민족을 향해 바른 소리를 내는 한국교회연합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신년인사를 통해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연합에 주신 소망대로 한국교회의 위상 추락을 막고 새롭게 '턴업'하여 재도약을 이루는 한국교회연합이 되도록 앞장서겠다"며 기도와 지원을 요청했다.

2부 하례회는 사무총장 김준규 장로의 사회로 서기행 목사(합동 증경총회장)를 명예회장에 추대했으며, 몽골에 게르교회 22개처를 건축 헌당하는데 도움을 준 CBS기독교방송(사장 한용길)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국교회의 재부흥 위해 헌신 다짐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신년하례예배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목 목사)는 지난 7일(목) 여전도회관에서 '신년하례예배'를 드리고 2016년 새해 어려운 현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한국교회의 재부흥을 위해 온 역량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대표회장 신신목 목사의 사회, 공동회장 김동원 목사의 대표기도, 정승

택 목사(경일경영정보 중·고등학교 이사장)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교회가 먼저 나서 후배들과 자녀들을 지도하고, 그들이 복음에 찬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전하고 "우리 주변의 환

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일을 지어 성취하지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맡기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것"을 당부했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나라의 안정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20대 총선과 기독교인 국회진출을 위해', '한국교회 개혁과 본질회복을 위해', '동성애와 이슬람 극단주의자 소멸을 위해' 최병두 목사(예장통합 증경총회장), 김진호 목사(기감 전 감동회장), 베타선 목사(목회자선교회 대표회장)가 각각 주례별 기도를 인도했다.

대표회장 신신목 목사도 "한국교회는 동성애, 이슬람, 종교인 강제 등 당면한 사회현안에 대해 하나로 뭉쳐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지협은 오는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스라엘 회복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성회'를 이스라엘 현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한기협·한개협·세교연 신년하례연합예배

충성된 일꾼으로 사명 감당을 위한 헌신 다짐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의회(이사장 양정섭 목사), 사단법인 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박형렬 목사), 사단법인 세계개혁신교회연합회(총재 김권현 목사) 3개 단체는 지난 11일(월) 여전도회관 루이스기념관에서 신년하례연합예배를 드린 가운데 기입교단 총회장, 총무와 임

원 대표들은 한 해 동안 더욱 충성된 일꾼으로 사명 감당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노종관 목사(세교연 상임부총재)의 사회로 김권현 목사의 대표기도, 서경숙 목사(예장합동부총총회 부총회장)의 성경봉독, 개혁중앙단과 김영섭 목사(예장정

통총회)의 특별찬양에 이어 박형렬 목사가 '성경이 소망입니다' (잠 17:10-1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성경에 소망을 두고 힘 있게 전진해야 하며 특히 어렵고 힘든 시기에 분별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금년에는 우리 모두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화해와 화목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어진 특별기도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해 △한기협, 한개협, 세교연 3개 단체를 위해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해 김성환 목사(예장기독교총회 총회장), 임정대 목사(한기협 이사), 최옥석 목사(세교연 대표회장)가 기도를 인도한 후 양정섭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016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신년하례예배 드려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세기총,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는 2016년 새해를 맞아 소외받고 고난 중에 있는 어르신들을 손수 찾아 뵙고 공경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지난 5일(토) 오전 11시 열린북지랜드(가평군 설악면 소재)에서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어르신과 함께하는 신년하례예배'를 드렸다.

상임회장 고시영 목사의 사회로,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는 인사말에서 "2016년 새해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구조적 부조와 현상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희망과 기쁨, 감사의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역사)가 있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동회장인 김희진 목사의 기도, 예장진리 총회장인 박광철 목사의 마 20:6-7의



성경봉독, 선린교회 여전교회의 특송에 이어 감리교전 감독회장인김진호 목사가 '포도원 주인의 참 뜻'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는 포도원 주인의 첫 번째 부름 받은 일꾼처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역사(역사)가 있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이날 예배는 김희진 목사의 사회로, 김희진 목사의 대표기도, 김희진 목사의 성경봉독, 김희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기며 시작한다는 것은 앞으로 한국교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열린북지랜드 이사장인 원종분 목사가 환영인사와 열린북지랜드 설립경과를 설명하였으며, 사무총장 김준규 장로의 내빈 소개와 사무국장 신광수 목사의 광고가 있은 후, 공동회장 김국경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총재·대표회장 취임 및 2016년 신년하례예배

대기총, 주님께 충성하는 사역자 되자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총재 조광동 목사, 대표회장 권오덕 목사)는 지난 7일(목) 오전 11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제7대 총재 대표회장 취임 및 2016년 신년하례예배를 드리고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화원교단의 권위를 위해 맡은 바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기를 뜨겁게 기도하고 새 해 회원 서로를 축복하는 사랑 나눔의 복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상임회장 최문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상임회장 이옥자 목사의 대표기도, 회계 유영호 목사의 성경봉독, 이사장 이선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선 목사는 대상 4:9-10 말씀을 본문으로 '구하는 것 주소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새로운 한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아베스에게 임했던 축복의 역사가 회원들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하

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상임회장 김무기 목사의 헌금기도, 특별기도로 '대통령과 남북통일을 위해',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대기총을 위해' 상임회장 윤운철 목사, 상임회장 김영문 목사, 상임회장 주화순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끝으로 이어진 취임식에서는 이사장 이선 목사가 총재로 취임하는 조광동 목사와 대표회장으로 취임하는 권오덕 목사에게 취임패를 각각 증정했다.

총재로 취임한 조광동 목사는 취임인사를 통해 "총재의 중책을 맡아 부족하지만 함께 하는 모임을 만들어 갈 것"을 당부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대표회장에 취임하는 권오덕 목사는 "부족한 종이 앞에 선다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지만 회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는다"며 기도와 성원에 힘입어 중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기총 46대 총회장에 이규환 목사 취임

부천시복음화와 세계선교 위해 헌신 다짐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이규환 목사)는 지난 17일(주일) 오정목양교회에서 2016년 신년 감사예배 및 총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부기총 신임 총회장 이규환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부족한 사람이게 부기총을 맡겨 주신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감사하다"

고 인사하며 "앞으로 일년 동안 부천시 복음화와 목회자들의 자질 향상, 세계선교에 앞장서며, 지역 주민을 섬기며 봉사하는 부기총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율리 "부천시의 모든 교회와 모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힘을 모으고 뜻이 하나 될 때에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지게 된다"면서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어 부기총을 섬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상임회장 박동순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증경회장 조주환 목사의 기도, 공동회장 원종호 장로의 성경봉독, 이강익 목사의 헌금기도, 특별기도, 이취임식, 사무총장 김재우 목사의 인사 및 광고, 증경회장 김장욱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취임식은 증경회장 이호성 목사의 사회로 증경회장 윤상호 목사의 이임기도, 직전총회장 이상화 목사의 이임사, 취임총회장 이규환 목사의 취임사, 취임패와 공로패 증정 순으로 진행되었다.

축하의 시간에는 이재을 부지사(경기도)와 이찬용 목사(오정구연합회), 이정욱 목사(예장 백석 사무총장), 김영진 목사(경기도 종교지도자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축사와 격려사로 이규환 목사의 부기총 총회장 취임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나라와 민족복음화 위해 더욱 총력 다짐

한국복음화운동본부, 신년하례감사예배 드려

한국복음화운동본부(대표총재 피종진, 대표회장 정상은 목사)는 지난 11일(월)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2016년 신년감사예배를 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복음화하는데 한해 더욱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했다.

대표회장 정상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여성대표회장 오영자 목사의 기도,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피 목사는 "위대한 전진"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새해에는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로 모든 일에 임한다면 모두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의 말을 전하며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길"을 축복했다.

이어 특별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북한동포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한국복음화운동본부의 발전과 사역을 위해' 윤영부총재 이강호 목사, 홍보부총재 김정호 목사, 전도부총재 최옥순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계속해서 총재 이종민 목사의 신년사, 김수진 목사(한국교회역사연구원장), 손동아 목사(인원교회 원로목사), 광도희 목사(기원부총재)의 축사, 전용만 목사(서울동부지역총재), 장효근 목사(강원지역총재), 김종기 목사(실무부총재)의 격려사 등 축하와 격려의 시간이 이어졌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 되길

연부협 신년회

연세대학교 총동문교회지부총협의회(연부협)는 지난 14일(목) 그랜드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6년 신년회를 열고 새해 인사를 나눴다.

1부 예배는 사무총장 김진옥 목사의 사회로 상임회장 이금옥 목사의 기도, 실무위원장 김철웅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연합신학대학원 김상근 원장이 '천사는 어디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희망찬 새해에 교계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연세동문 목회자들을 통해 힘되고 고통 중의 영혼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천사의 사명을 감당하자"고 전했다.

이어진 특별기도에서는 상임회장 서성철 목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날재 목사



가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전영대 목사가 '모교와 연부협을 위해서' 각각 부르짖어 간구했다.

계속해서 대표회장 장향희 목사의 환영사, 상임고문 피종진 목사, 명예상임고문 임원순 목사, 고문 오범열 목사가 신년축하메시지를 전하였으며, 상임위원장 권영의 목사가 신입회원들을 소개했다.

사무국장 박진섭 목사는 광고에서 2월 19일 하미각에서 정기임원회, 4월 14일 회원교회인 안양성산교회(오범열 목사) 방문, 8월 8일-12일까지 부흥성회, 9월 5-8일까지 해외워크샵, 10월10일 김포동산교회(김종우 목사)에서의 모임을 전했으며, 고문 손대영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신년하례예배, 큰 부흥 이루는 2016년 되길

경기중앙지방회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최철민 목사)는 지난 7일(목) 오전 11시 송전교회(담임 윤장현 목사)에서 '신년하례예배'를 드렸다. 특별히 이날 예배는 지방회의 연합과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임원진 뿐 아니라 지방회 전체 회원이 참석하는 모임으로 확대하여 드려짐으로 은혜롭고 아름답게 진행되었다.

예배는 지방회 서기 윤두환 목사(호평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지방회 부회장 임흥택 목사(순복음제일교회)의 기도과 증경회장 이은승 목사(은혜와승리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은승 목사는 마 10:1-8 말씀을 본문으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하여 26여 년의 목회 경험을 통해 얻어진 본인의 목회사역 방법을 유인물과 함께 소개하고 동역자들이 함께 공유하며 2016년 도 목회에 참조할 것을 권면하였다.

특히 스킷 동영상의 실패를 보여 주며 효과적이고 임팩트 있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설교방법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이에 참석한 모든 교역자들은 큰 도전을 받고 2016년 목회를 최선을 다하여 충성되이 이루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이어서 지방회 회계 유석구 목사(에베다 순복음교회)의 한금기도와 증경회장 조남영 목사(기쁨순복음교회)의 새해 덕담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화목한 가운데 지방회 소속

모든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는 2016년이 되기를 소망하였고, 모든 회원들은 기쁨으로 '아멘'하며 화답하였다.

예배는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조남영 목사의 기도와 축도로 마쳤다. 예배 후 송전교회(담임 윤장현 목사)에서 정성껏 준비한 사바샤브로 애잔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축복하고 덕담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신년하례, 행복한 목회로 지방회 발전 이루자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김영인 목사)는 지난 7일(목) 오전 11시 나주순복음교회(담임 주덕영 목사)에서 부부동반으로 2016년 신년하례식과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최정식 목사(종무)의 사회로 장영기 목사(부회장)의 대표기도에 이어 지방회장 김영인 목사가 합 3:2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 부흥을 이루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영적부흥을 받아야 신앙에 열정이 생기고 가정과 교회가 부흥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개인과 가정, 교회적으로 영적부흥을 고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며, "기독교 신앙이 흔탁해지고 있는 이때에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회개운동과 강력한 성령 충만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특별기도 순서로 김정식 목사(증경회)가 '국정 안정과 총화를 위해', 김행배



목사(직전회장)가 '지방회와 회원교회를 위해' 각각 특별기도한 후 재무 조은주 목사의 한금기도, 조원재 목사(증경회장)의 축도 순으로 마쳤다. 이어 2부 순서로 지방회 증경회장 임원, 지방회원들 간 서로 축복하며 신년하례를 갖고 회원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증정했다. 이후 1월 월례회로 모여 실행위원회

보고, 총무보고, 회계 및 재무보고, 기타타의 등 회무를 처리했다.

3부 교제의 시간에는 장소를 영광으로 옮겨 나주순복음교회에서 제공한 '영광굴비정식'으로 특식 오찬과 함께 덕담을 나누며 행복한 목회로 지방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송년예배, 수고와 헌신으로 준비하고 승리하자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최병진 목사)는 구랍 28일(월) 오전 11시 전주 드보네퍼시아당에서 지방회 송년예배를 드리고 한결같은 은혜

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1부 예배는 김상운 목사(지방회 총무 성광순복음교회)의 사회, 김희수 목사(지방회 서기 은혜시립순복음교회)의 기도, 최강욱 목사(지방회 회계 순복음제일교회)의 성경봉독, 김종호 목사(증경지방회장 순창순복음교회)의 설교, 최병진 목사(지방회 회장 익산 은혜와진리교회)의 광고, 표재욱 목사(증경 지방회장 성령알곡교회)의 축도 순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돌렸다.

증경지방회장 김종호 목사는 담전 6:11~14 말씀을 본문으로 '그날까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모든 지방회 동역자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와 수고와 헌신으로 준비하고 승리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1부 예배 후에는 지방회원들과 함께 오찬과 사우나를 함께 하며 교제와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신년하례예배, 능력있는 말씀 전하자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김영식 목사)는 지난 11일(월) 오전 11시 순복음은총교회(담임 서은자 목사)에서 신년하례예배를 드리고 2016년에는 더욱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감당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정찬식 목사(송곡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최남성 목사(순복음동강교회)의 기도, 회장 김영식 목사(순복음장전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엡 6:12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자들은 주의 종이자 사명자이므로 말씀의 감투를 입고 능력있는 말씀을 전하자"고 역설했다.

이어서 인전 송도에 세워지는 이슬람대학



으로 인한 포교가 확산되지 않도록, 익산에 세워질 예정인 '할랄푸드 테마파크' 계획이 무산되도록 합심하여 기도했다.

지방회 증경회장인 김갑신 목사(새여수 은혜와진리교회)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목회자들은 새해 인사를 나누고 여

수시 돌산읍의 베르나아펜션으로 이동하여 은총교회의 아낌없는 후원 하에 하룻밤을 묵으면서 2016년 지방회의 모든 목회자들이 더욱 더 단합하고 화합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 토론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월례회, 신년의 도약 위해 힘내자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심현일 목사)는 구랍 29일(화) 오전 11시 임마누엘순복음교회(담임 심현일 목사)에서 송년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창모 목사(인천국제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지방회 부회장 홍영광 목사(은혜와 사랑교회)의 대표기도, 홍영광 목사 색소폰 특별연주, 지방회장 심현일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되었다.

심 목사는 전 9:1-10의 말씀을 중심으로 '후회 없는 인생'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지난 기간 지방회와 함께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신년의 도약



을 위하여 모두 함께 힘내자"고 회원들을 축복하고 격려했다.

이어서 지방회 회계 박미정 목사의 한금기도와 지방회 총무 이창모 목사(인천국제

순복음교회)의 광고가 있었으며 지방회장 심현일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모든 회원들이 모여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신년예배, 주만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행복자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남수 목사)는 지난 12일(화) 오전 11시 화성 봉담읍 당하리 157번지에 위치한 밝은빛교회(김남수 목사)에서 신년하례예배 및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박흥열 목사(오성사랑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최정호 목사(민음교회 담임)의 대표기도, 증경회장 이규호 목사(순복음동성교회)가 찬양특송으로 회원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찬양을 불렀으며, 설교에는 증경회장 정석현 목사(순복음평강교회)가 행 3:1~10 말씀을 본문으로 '세 종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진정한 행복지라고 설교함으로써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한금기도에 강신홍 목사(은혜와사랑교회), 김기인 목사(벤엘교회 담임)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곧바로 지방회 월례회 회무를 처리하였으며 지방회통합 이후 임원들이 결정한 주

요 지방회 조례 내용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알리고 수정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지방회장 김남수 목사의 정성이 가득한 식사 대접 후 교제와 사랑을 나누며 모든 순서를 마쳤다.

엘벤엘생명교회 성전이전 및 가임감사예배

서울중앙지방회

서울중앙지방회(회장 김덕영 목사)는 지난 11일(월) 오전 11시 엘벤엘생명교회(조지형 목사) 성전이전 및 가임감사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총무 이기성 목사(새소망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삼기 목사(사랑과 생명교회)의 기도, 이기성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지방회장 김덕영 목사(진리교회)가 출 15:20-27 말씀을 본문으로 '좋은 하나님의 집'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설교를 통해 "엘벤엘생명교회가 감사와 감격의 찬양이 있는 교회, 부르짖어 기도도 문제를 해결받는 교회, 영육이 강건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될 것"을



당부하고 축복했다.

이후 합심기도, 부회장 박정자 목사(성호교회)의 한금기도, 김재성 형제의 한금특송, 서해범 목사(엘벤일교회)와 임준동 목사(성



회교회)의 권면, 성정자 목사(브니엘장제인교회)의 축사, 엘벤엘생명교회 담임 조지형 목사의 인사와 광고에 이어 서해범 목사(엘벤일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 생명의 말씀 ■



김종열 목사

· 서울강남지방회장
· 참사랑교회 담임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만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 그 뿌리에서 예수가 탄생 되었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간 흉년이 들 때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이주하여 살기 시작하므로 창 15:13절 말씀이 성취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창 15:13)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에 생활하던 민족 200여 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을 단행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게 됩니다.

모세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이 건너에 보이는 모압에서 임무를

마치고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대권을 맞게 됩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십니다.

“네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 하게 하리라”(수 1:5-6)

여호수아는 모압 평지에 이르러 요단강가 30리 거리에 있는 싯딤에 장막을 치고 가나안 정복을 준비합니다. 당시 백성들에게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정복이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1)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크게 세우십니다(수 3:7)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수 3:7)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넌고 반석에서 물을 내심을 이스라엘도 알고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건들을 듣고 있

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증거함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용기를 주고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위협을 하지는 의도입니다. 본문에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이지만 정탐꾼의 보고처럼 그림의 떡 같은 곳입니다.

장마로 인해 건널 수 없는 현실 앞에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것은 원주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요단강물이 범람할 때 그 강을 건너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홍수 중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권위로 이스라엘은 자신감을 가졌고 가나안 족속은 발발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으로 인해 강성한 일곱 족속들도 능히 물리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2)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세웁니다(수 3:8-9)

“너는 언약례를 댈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르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하고”(수 3:8-9)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물이 범람하여 아무도 건널 수 없을 때에 제사장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상황을 보고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수 3:7-10)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자는 담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은 물로 들어갔고 하나님은 목전에서 물을 끊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계화하신 이유는 여호수아를 크게 하여 권위를 주기 위함이며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

3)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믿음을 가집니다(수 3:10)

“또 말하되 살아 계신 하나님에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 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수 3:10)

언약례를 댈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여 물을 끊을 때 강물은 끊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능히 원주민 일곱 족속도 물리치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얻을 수 있고 기적을 체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무리를 따라 가다가 물이 왜 끊어졌는지 모르고 강을 건

너 가나안 족속을 만나면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의지해야 인생의 방향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궤를 댈 제사장들이 강물 중간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댈 제사장들이 댈 나중에는 물이 올라오자 물은 다시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그의 꿈을 해몽해 주심으로 총리가 되었고, 엘리야 시대에는 왕과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있을 때 엘리야 제단에 불을 내리시므로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돌아오고 우상을 타파하므로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므로 생축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 교회부흥에 감금하여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교회부흥은 하나님도 바라시는 바며 모든 교회가 목표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셔야죠”라고 했더니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서있는 강단에 불이 떨어지면 불이 없어 머뭇거리고 떠나갔던 백성들이 불을 보고 돌아오지 않을까요.

한국보다는 미국에 대한 비난의 톤을 높이고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게 되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중국은 북한의 국제사회 제재에 적극 동참하여 각기를 부리는 북한의 젊은 지도자의 어리석은 불장난을 막아야 한다. 이를 방지한다면 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깨는 화를 지초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결정적 순간에 남북화해 무드를 파탄시켜, 햇볕정책의 무용화를 자초하고, 남북협력의 길을 스스로 폐기하는 우를 범하였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간교한 대남전략에 능동당하지 말고, 차분하고 냉철하며, 원칙적인 대응을 하기 바란다.

이제 북한 당국은 핵개발과 핵실험 중독에서 벗어나,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의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한민족의 미래를 위한 일에 협력하기를 바란다.

동 정

문광부 김종덕 장관 한교연 내방



한교연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지난 14일 한교연을 내방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환담하고 국민대통합을 위해 기독교계와 정부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김종덕 장관은 “우리나라는 계층간 세대간 문제가 많다. 이런 시대에 한교연이 국민대통합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카이암 회장에 함정호 목사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카이암) 연합회장에 함정호 목사, 목회국장에게 이영용 목사가 각각 취임했다. 함회장은 “지극히 작고 부족하지만 연합회장직을 맡아 카이암의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를 섬기게 됐다”며 “이 막중한 일을 시작하면서 사명 감당을 위한 중보기도를 요청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CTS, 통일과나눔재단과 업무협약



CTS기독교TV(회장 강경철)는 지난 7일 업무협약식을 열고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안병훈)과 통일기금 모금 사업과 여러 통일관련 사업을 공동추진하고 홍보하는데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통일기금 모금 사업 등 통일 관련 사업들의 공동 추진 등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나사렛대, 총장에 임승안 목사



학교법인 나사렛학원 재단이사회(이사장 이영식 목사)는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임승안 아시아태평양 나사렛대학원 총장을 제7대 나사렛대학교 총장으로 선출했다. 임 총장은 1994년 나사렛대학교 교수로 임용돼 교무처장, 신학대학원장과 제4·5대 총장 등을 두루 거쳤으며 임기는 4년간이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김정은의 핵실험은 북한정권의 몰락 실험장이 될 것이다

북한이 6일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보도는 국제사회에 충격적이고 분노를 가져왔다.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다는 분석이며, 성공했다고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다.

어찌되었든, 북한의 이런 핵실험은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비평에 대한 도전이며, 동북아의 평화적 분위기를 깨는 것이며, 동북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지금 북한은 오직 핵개발과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망상으로, 세계평화를 불모로 잡고 체제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올해 치러질 미국의 대선을 겨냥하여, 자신들의 손익계산을 염두에 두고, 벌이는 소위 ‘몸값’ 올리기 장난에 불과하다.

북한의 이런 행위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깨는 것이다. 북한은 틈만 나면, ‘평화’나 ‘회담’ 아니 하면서, 마치 평화를 위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뒤로는 핵실험을 통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고, 핵실험 협박 소를 받아 왔다.

이번에 북한 당국은 제4차 핵실험을 함에 있어서, 과거와는 달리,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에 사전에 통보도 하지 않아, 소위 북한의 동맹국들까지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는 어떤 김정은의 ‘예측 불허’ 통치 스타일을 보여주므로, 국제사회의 불신과 불안의 키우고 있다.

북한의 이런 핵실험은 다목적의 노린 것으로 보인다. 올 해 5월에 있게 될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이 수소탄을 개발한 지도자로 발돋움하여 김정은 우상화를 앞당기려는 의도와, 한국에 대하여 밀월관계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현시진평 국가주석 체제에 의도적 압박 수단과, 북한 주민의 체제 결속을 위한 것으로 풀이 된다.

현재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되면서, 주민들의 삶은 나아진 것이 없다. 김정은 정권은 주민의 삶을 돌보기는커녕, 북한 전체 인구가 2년을 먹고 살 식량 분을, 한 번의 핵실험으로 낭비하는 것은 ‘역사적 단죄’와 심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백년 양보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미국을 공격할 것인가? 중국을 공격할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를 공격할 것인가? 오히려 북한 주민의 삶만 파멸하고, 북한 당국만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어리석음을 자초하여, 스스로 몰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북한 방송은 이날 보도를 하면서, ‘핵개발 중단이나 핵 포기하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말로 북한 당국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북한 당국이 핵에 매달리는 한, 북한 동포들은 경제적 파멸로 빈곤에 내몰리고 결국은 핵으로 인하여 망하는 정권의 전형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도 북한 당국에 대한 제재를 기하겠지만, 우리 정부와 국민들도 경제심을 늦추지 말고, 북한 당국의 행태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현재 북한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6년도 목사고시 공고

2016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류접수 : 2015년 8월 28일(금)까지

(1) 목사고시 청원서 : 총회 홈페이지(www.aogk.org) → 자료실 → 서식 다운로드 → 교단서식 → 15호 목사고시청원서 다운

(2) 구비서류 : 목사고시 청원서 참조

* 2부 작성하여 1부는 총회 고시위원회에 제출, 1부는 지방회에 보관.

2. 서류접수처 : 150-150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총회본부

3. 서류심사 : 2015년 9월 3일(목) 오전 11시

4. 오리엔테이션 : 2015년 9월 17일(목) 오전 11시 총회본부

5. 성경고시

(1) 논문 대신 성경고시 실시.

(2) 성경고시는 성경암송과 문제풀이로 함.

6. 목사고시 : 2016년 2월 22일(월) ~ 23일(화), 오전 10시 총회본부

7. 목사고시료 : 50만원

(1) 납부일 : 2015년 8월 28일(금)까지

(2) 입금계좌번호 : 국민 061701-04-17686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8. 목사고시 응시자격 :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목사고시 과목

(1) 구약학 (2) 신약학 (3) 조직신학 (4) 교회사 (5) 교회 행정학 (6) 목회 윤리학 (7) 헌법 (8) 기독교교육 (9) 교회성장학 (10) 면접 (11) 설교 실기(5분)

* 설교는 2부 작성(심사용 1부, 설교자용 1부) 목사고시 당일에 제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진동웅 고시위원장 목사 김인규
총 무 목사 김병묵 서 기 목사 이석호

목회자 칼럼

서헌철 목사 // 장로교신학 학장, 장신교회 담임

금수저, 은수저 신앙



2015년 12월 18일 “서울대 재학생이 유서를 남기고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매스 미디어(mass media)를 타고 전해져 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대 생명과학부에 재학 중인 A(00)씨가 18일 새벽 3시쯤 거주하던 신림동 옥탑방 건물에서 투신해 숨었다고 밝혔다.

그는 투신 전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서를 올려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분노가 너무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 생존을 결정하는 건 결국 수저 색깔이었다.”고 적었다.

A씨는 유서에서 “나를 힘들게 만든 건 이 사회고, 나를 부끄럽게 만든 건 나 자신이다. 더이상 힘들고 부끄러운 일은 없다.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자살을 암시했다.

또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자되고 있는 ‘수저론’(부모의 재력에 따라 금수저, 흙수저 등으로 계급을 나누는 젊은 층의 자괴적 표현)을 언급하며 사회를 비판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서로 수저 색을 논하는 세상에서 나는 독자형 ‘금 전두엽’을 가진 듯했다. 하지만 생존을 결정하는 건 전두엽 색깔이 아닌 수저 색깔”이라고 적었다. “내가 일생 동안 추구했던 가치는 ‘합리’지만 이세상의 합리는 나의 합리와 너무나도 달랐다.

먼저 태어난 자, 가진 자, 힘 있는 자의 논리에 굴

복하는 것이 이 사회의 합리다. 저와는 너무나 다른 이 세상에서 버티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서울 지역의 한 과학고를 조기졸업하고 지난해 서울대에 입학한 A씨는 전액 장학금을 받은 정도로 성적이 뛰어난 편이었다. ‘모범 선배’로 선정돼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후배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대학 교수, 어머니는 중학교 교사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는 편이었다. 또 학업과 병행해 대학 학보사에서 3학기 동안 학생기자로 활동했다. 하지만 늘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하고, 모든 일에서 뛰어난 성과를 얻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한다.

대학 시절 내내 심한 우울증이 그를 괴롭혔다. A씨는 평소 지인들에게 “너무 힘들어 모두 남겨 놓고 떠나고 싶다”고 자주 말했다고 한다.

또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박스 병에 메탄올을 가득 채워 다니며 “힘들때 마시려고 가지고 다닌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올 중순 학보사에서 나온 A씨는 최근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TT)에 응시해 합격선에 가까운 점수를 받기도 했다.

지난 14일엔 친구들과 동해안으로 이틀간 여행을 다녀왔다. A씨의 친구는 “A의 옥탑방을 ‘복력방’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구들이 자주 놀러가 술을 마시고

놀았다. 지난달 24일에도 과학고 동기 몇 명과 옥탑방에서 술을 마셨다”고 전했다. [출처: 중앙일보]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금수저, 은수저의 신앙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마25:40)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정욕에 의한 감질을 버리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김을 실천하는 금수저, 은수저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물론 감질의 논란에 서있는 흙수저 신앙은 지옥에 갈 뿐 아니라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음은 물론 사회의 한 구성에서 아파하는 이들에게서 소망마저 빼앗는 것과 같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욕에 의한 금수저, 은수저가 아닌,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금수저, 은수저 신앙을 회복하는 복을 누리는 2016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는 A씨와 같은 아픈 일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열망한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뿐 아니요 나무와 짚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딤후 2:20-21)



미래전략대토론회 열고 방향 모색

미래목회포럼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은 지난 14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년감사에배 및 이상대 대표·오정호 이사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예배에서는 조일래 목사(한교연 대표회장)가 설교를, 황우여 정로(전 부총리), 박진 이사장(이승만기념사업회), 이해훈 회장(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등이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어 사무총장 이효상 목사의 취임사 소개 후 신임 대표회장 취임한 이상대 목사(서광성결교회)가 “새로운 도약과 변화의 시기에 기독교정신과 가치관을 구현하며 넓은 시야 깊이 있는 접근으로 한국사회와 교회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연임한 이사장 오정호 목사(세로남교회) 역시 “미래목회포럼이 성크랭크에서 액션탱크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미래목회포럼은 올 한해 놓여준 작은 교회 격려 캠페인과 같은 도농상생운동에서부터 31운동 97주년기념 예배, 평화통일 네트워크 사업, 종교개혁 499주년 기념포럼과 리더십 콘퍼런스 개최 등 한국교회와 나이가 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10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배 후 가진 한국교회 개혁에 대한을 제시하기 위해 열린 ‘한국교회 미래전략 대토론회’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교회의 개혁과 연합, 새로운 콘텐츠 발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양현승 교수(연세대)는 “혼돈이 극심할수록 정체성이 명확한 조직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고 이를 지켜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정배 목사(송촌장로교회)는 ‘목회자 지정운동’을 펼쳐나가자며 “목회자 지정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한국교회 문제는 지금도 성도들은 순수한데 그런데 목회자들의 수준이 그렇지 못하다는 대 문제가 있다. 종교개혁을 앞두고 먼저 지정선언과 지정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성진 목사(여북한빛광성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갱신될 수 있는 실질적 내용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분당구미교회 김대동 목사는 “칼빈과 루터의 개혁은 문제점을 고치자는 취지보다 주의 은혜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다”고 말했다. “목회자로서 생각할 때 교회가 은혜를 되찾는다면 물질적인 문제나 교회의 세속화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겠나”고 전했다.

미래목회포럼 대표 이상대 목사는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목회자다움을 회복해야 교회 연합사업도 이루어질 수 있다”며 “만약 종교개혁 500주년 등 한국교회 당면과제가 연합으로 이루어진다면 미래목회포럼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것”이라고 제안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결코 멈출 수 없는 ‘사랑의 빨간밥차’ 무료급식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이사장 이선구)는 2009년부터 시작한 무료급식 사업 ‘사랑의 빨간밥차’를 통해 매주 5회 서울역과 인천 부평역·주안역·계양구에서 홀몸어르신들과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통해 작은 행복을 나누고 있다.

매년 120만 명에게 식사와 농산물과 생필품 등 먹거리를 나누기 위해 연간 2만 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의 눈물겨운 수고가 있으며, 우리 시대의 소외계층에게 정부지원 없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사랑의 빨간밥차’에는 점심때만 되면 어디든가 나타난 어르신들로 인사인해가 된다.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분들... 평생 가난에 찌들게 사셨던 어르신들... 각자 맞 못할 사연 속에 응어리진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 이른 새벽부터 폐지를 주우러 다녀도 점심 한 끼조차 해결할 수 없는 풍토를 겪는 것이 어르신들의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경제 불황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요즘, 기업들의 기부금이 줄고 후원마저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 서, 겨울철 무료급식소는 속이 타들어 간다. 정부 후원 없이 운영되는 곳이라 기쁨이나 겨울철이면 봉사자들도 사회의 관심도, 후원도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하지만 아무리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한 끼로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오던 무료급식 횟수를 줄여서 운영할 수는 없다. 정부 지원 없이 운영되는 곳이다 보니 후원의 손길이 끊어지게 되어 문을 닫으면, 수많은 독거어르신·노숙자, 장애인들의 한 끼 식사를 거를 수밖에 없다.

이선구 이사장은 “다른 건 몰라도 끼니를 굶는 사람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인 및 기업들이 후원에 동참하여 무료급식이 지속되어 계속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요청했다.

개인 및 기업 후원은 서울역, 부평역, 주안역의 역

전광장에서 매일 영하의 추위에 떨며 떨며 허기진 배를 채우는 1,700명의 소외계층(서울역 600명·부평역 500명·주안역 400명·계양 200명)에게 사용된다.

사단법인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이사장 이선구)는 매일 먹을 한 끼를 걱정하며 힘겹게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홀몸어르신들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이 살고 있는 노숙인들, 세상의 그릇된 편견으로 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편견과 선입견의 거센 폭풍 속에서 안전한 울타리가 되고자 2008년에 설립되었다.

후원문의 : 사단법인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 1600-4022

하이패밀리, 민목 사생관 세미나 개최

하이패밀리(대표: 송길원 목사)는 “한국기독교군선교교역자협의회”와 함께 지난 19일(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서원교회에서 웰라이빙(Well Living : Well Living & Leaving)스쿨 : “민목 사생관(學生觀)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군선교와 관련된 교역자들을 위한 과정으로 준비되었고, 주대장은 민목(민간인 군 목회자)이다. 이들의 교육을 위해 부산 수영로교회가 후원금을 기부해 군선교 교역자들의 참여 부담을 낮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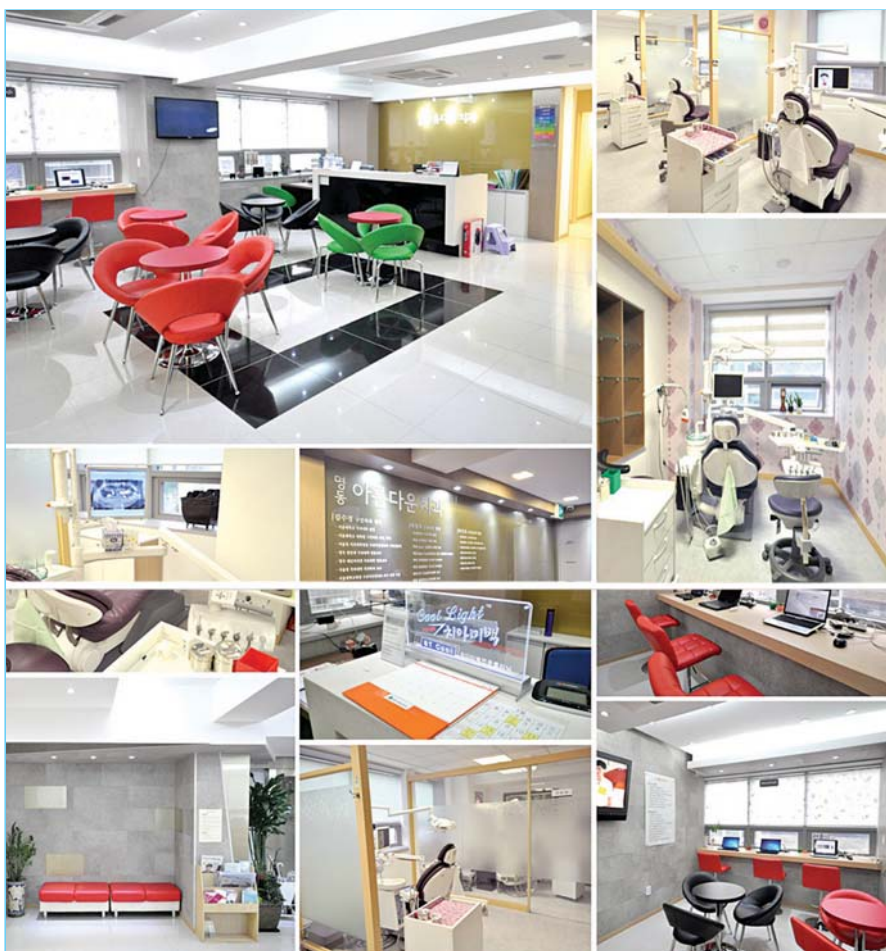
지난해부터 교육시령부는 하이패밀리의 교재로 우리 군에게 군 사생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로 2015년 우리 군 자살률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군인 교회를 섬기는 군목의 수는 턱없이 모자라고, 그 공백과 신앙 전력의 사각지대를 민목들이 채우고 있다. 이들에게 사생관 교육이 필요한 절실한 시점에 하이패밀리는 민목들을 위한 세미나를 기획하여 개최하고 있다.

이 세미나를 수료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증인 ‘웰라이빙 교육사 2급’ 자격증이 수여된다. 아울러 자격증 취득자에게는 한국임종영성학회 회원자격이 주어진다.

하이패밀리 <웰라이빙 스쿨> “민목 사생관 세미나”를 통해 군 사생관 리더들이 양성되어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안전한 군복무의 토대와 군선교의 기틀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문의 : 031-772-3223



명동아름다운치과
Myeongdong Beautiful Dentis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 업무협약

명동아름다운치과의원

사랑과 믿음으로 진료하는 명동아름다운치과의원입니다.

다년간 임상경력과 함께 믿음의 뜻을 품은 치과입니다.

구강건강을 통한 마음과 치아가 아름답게 웃을수 있도록 성심껏 진료하겠습니다.

진료안내 : 임플란트, 치아교정, 심미보철, 어르신을 위한 틀니, 보철진료
평일 진료시간 : 오전 9:30분 ~ 오후 6:00 점심시간 오후 1시 ~ 2시
야간진료 : 오후 9시까지

오시는길

지하철 4호선 명동역 4번출구 50m
직진 세대빌딩 8층

주소

서울시 중구 회현동3가 11-3
세대빌딩 8층

찾아오시는길



문의 / 상담 : 02-777-1224 , 778-1224

제2회 목회세미나 서울중앙지방회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 주제로

1박 2일간 ... 제암리 순교성지도 돌아봐

서울중앙지방회(회장 김덕영 목사)는 지난 18일(월)부터 19일(화)까지 1박 2일간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과 용인한화콘도에서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라는 주제로 제2회 목회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교회의 바른 복음전파와 정체성 회복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진리의 복음전파를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마음의 각오를 다졌다.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기성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부회장 박정자 목사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김덕영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막 1:21-22 말씀을 본문으로 ‘새해에는 예수님을 따라가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번 세미나를 위해 준비한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사역자로서 더욱 성숙해 지게 되기를 소원한다”고 전하고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은혜로운 설교는 본이 되는 목회자의 삶이 바탕이 되어야하며 거룩하고 정직하며 겸손하고 사람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

습이 은혜로운 설교와 함께 보여질 때 가장 은혜로운 설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특강시간에는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를 강사로 하여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라는 주제의 특강이 이어졌다. 조 목사는 특강을 통해 “설교에는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 치료의 복음, 권능의 복음, 지혜의 복음, 부활의 복음, 천국복음이 담겨져 있어야한다고 전하고 사명감으로 행복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다 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최한규 목사의 ‘설교작성법’ 특강이 있었으며 지방회원들은 용인 한화콘도에서 이동하여 저녁시간 식사와 교제시간을 갖고 사랑을 나누었다.

다음날 오전에는 임춘동 목사의 ‘21세기 목사는 설교에 프로그래머가 되어야한다’는 제목의 특강 최한규 목사의 워크숍 ‘설교만들기’, 성정자 목사의 폐회 예배 설교로 나의 설교

강사진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교단 정책위원장



김덕영 목사
진리교회
서울중앙지방회장



임춘동 목사
성화교회



성정자 목사
브니엘장애인교회



최한규 목사
하늘물교회



이기성 목사
새소망교회
서울중앙지방회 총무

준비과정을 마지막으로 목회세미나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오전을 나눈 뒤 회원들은 국내성지순례일정으로 제암리 순교성지를 둘러보고 어렵고 힘든

시절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교를 불사하며 헌신한 분들의 뜻을 깊이 기렸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서울중앙지방회 목회세미나에 참여한 회원들은 회를 거듭할수록 참으

로 유익한 시간이 됨을 감사드리고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다음 세미나가 기다려진다면 믿을 수 있었다.



신년하례예배, 부흥의 한해가 되길 소망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한명집 목사)는 지난 11일(월) 오전 11시 순복음갈릴리교회(담임 정영진 목사)에서 신년하례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조경화 목사(총무, 순복음주

님의교회)의 사회, 신복희 목사(부회장, 순복음화평교회)의 기도, 김태주 목사(회계, 순복음부산우리교회)의 성경봉독에 이어 이종문 목사(글로벌교회)가 행 2:1-4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세례와 전도폭발’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설교를 통해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부산지방회 소속 교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세례와 성령의 불기둥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부흥되고 부산지역이 변화되는 전도폭발의 놀라운 부흥의 한해가 되기 위해 목회자들이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여 다시 한번 부흥의 불씨를 살리자”고 당부했다.

이어 통성기도 후 김경옥 목사(재무, 순복음하늘소망교회)의 헌금기도, 사회자의 광고, 이장 목사(갈릴리교회 원로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지방회장 한명집 목사의 진행으로 하례식이 이어졌다.

이어 지방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나누고 기념촬영 후 갈릴리교회(담임 정영진 목사)에서 대접하는 이탈리아음식 레스토랑에서 오전을 한 후 달맞이고개로 자리를 옮겨 사우나와 더불어 멋진 바닷가의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김장수 목사)는 지난 12일(화) 오전 11시 온선교회(담임 탁정신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1부 예배는 이정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탁정신 목사의 대표기도, 증경회장 한승수 목사의 설교, 오세준 목사의 헌금기도와 증경회장 한승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진 2부 월례회는 서기보고, 회계보고를 받은 후 지방회 현안들과 기타안건에 대해 토의했으며, 또한 지방회와 교단의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월례회를 마친 지방회원들은 원마운트 바르미에서 오전을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비전과 열정을 주시옵소서!”

‘청년봉사선교회 겨울수련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마쳐

은혜와진리교회(담임 조용목 목사) 청년봉사선교회 겨울수련회가 1월 7일(목)부터 9일(토)까지 2박 3일간 전원성전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딤후

6:12)는 주제로 말씀과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 속에 열렸다.

청년들은 당회장 조용목 목사의 특강을 비롯하

여 주제 특강(믿음의 선한 싸움)과 선택 특강(그리스도인의 이성교제와 동성애에 대한 관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비전리와 선한 싸움을 싸우라 - 이단/이

슬람교, 지신과의 싸움), 공동체 경건훈련(조별 모임, 기수별 모임, 성전별 모임), 주제별 기도회, 말씀묵상 등의 다양한 순서를 통해 믿음이 견고하여져 주께서 주신 거둔 난생명과 맡기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용하기로 결단하였다.

조용목 목사는 첫날 저녁 열린 특강에서 청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를 위해 헌신하며 주 안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비전을 이루기에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되도록 축복했다.

조용목 목사는 ‘정체성과 방향감각’이란 제목의 강에서 그리스도인이려면 당연히 가져야 할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바른 성경관과 기독교에 대

하여 말씀하였다.

이어서 조 목사는 성경을 주제로 강의했던 지난 여름수련회 특강에 이어서 ‘성령은 누구이신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청년들에게 신령한 지식을 더하고, 담대하고 열정적으로 주의 일에 힘쓰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청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었다.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청년들은 젊은 날에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앞장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다짐하고, 아침 신책과 야간 소모임을 통해서도 믿음을 북돋워 주고 격려하며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



예하성전북신학교 제16회 졸업예배

졸업생 이종현 외 5명, 전도사 임명 청원 가능

예하성전북신학교(학장 임종달 목사) 2016년도 제16회(교단 제61회) 졸업예배가 지난 14일(목) 오전 11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5번지에 소재한 예하성전북신학교 대예배실에서 드려져, 신학과 이종현, 박인숙, 정정희, 이정민, 최분숙, 장선주 등 총 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들은 졸업 후 사역하는 교회의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아 소속 지방교회에 전도사 임명 청원을 할 수 있다.

이날 졸업예배는 학장 최병진 목사(익산 은혜와진리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사회자의 개식사, 황인근 목사(순복음전주제교회)의 기도, 사회자의 히 6:11-12 성경봉독에 이어 학장 임종달 목사(전주 은혜와진리교회)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란 제목의 설교와 기도가 이어졌다.

이어진 졸업식은 교학주임 최미화의 학사보고, 학장 임종달 목사의 졸업장 수여, 이사장상 등 상장 수여, 이사장 김종호 목사(순천순복음교회)의 축사, 고현진 목사(전북서지방회장)의 격려사, 재학생 대표 최규임 학우의 송사, 졸업생 대표 정정희 학우의 답사에 이어 윤갑철 목사(전북경철침묵목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이날 졸업식에서는 이사장상에 정정희, 학장상에 박인숙, 전북지방회장상에 이수상했다.

중·고등·청년수련회 '정체성 회복' 주제

안동성곡교회에서 3일간 열려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신재영 목사)는 지난 1월 4일(월)부터 6일(수)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중·고등, 청년수련회를 '정체성 회복'이란 주제로 안동성곡교회(당회장 목사)에서 개최했다.

첫날 개회예배에서 증경지방회장 강태진 목사는 말씀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수련회가 되길 당부하였다.

이어 변원식 목사(창조교회)의 찬양과 레크리에이션으로 탄진 심령을 여는 시간을 가졌고 이어서 저녁시간에는 말씀과 성령충만기도 시간으로 안동벨교회 손수인 목사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란 주제로 중·고등학생과 청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지방회 목회자들의 안수기도와 함께 성령충만 기도로 첫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쳤다.

둘째날은 도명수 목사(동해안순복음교회)의 아침예배를 시작으로 청송교도소 교회위원장 김신웅 장로의 간증시간과 교단 전직 서기 진영감 목사(주천안교회)의 특강이 있었다.

이어 오후 시간에는 안동 하회마을을 관광하며 이곳의 유래와 서예 유성룡의 나라사랑을 배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 성령충만 기도회 시 간은 중·고등학생 청년들과 목회자가 성령



으로 하나되어 뜨거운 기도시간을 가짐으로 둘째날 일정을 마쳤다.

셋째날은 지방회 총무 정진학 목사(대전 사랑교회)의 아침예배를 시작으로 지방회 회계 장동근 목사(순복음예장교회)의 찬양과 말씀 증거 후 폐회예배를 드렸다.

폐회예배에서 지방회장 신재영 목사(새 김천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정

체성을 가지고 대구경북지방회 중·고등학생 청년들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길 당부하였다. 증경지방회장 강태진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수련회 일정을 은혜롭게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였다.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안동성곡교회 여성교회에서 섬겨주시기로 수련회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다.



사)예장연, 한국교회의 정체성 회복 총력

2016년 신년하례 및 대표회장·상임회장·임원·신임총회장 취임예배

바른복음 전파위해 헌신 다짐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대표회장 이광용 목사)는 지난 12월(화) 오전 11시 여천도회관 2층 무이시기념관에서 2016년 신년하례 및 대표회장, 상임회장, 임원, 신임총회장 취임예배를 드리고 새해 한국교회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종교 다원주의를 뿌리뽑고 바른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상임회장 장승우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상임회장 이성현 목사의 대표기도, 총무 하태관 목사의 성

경봉독, 소프라노 이지현 교수의 특송, 고분 예영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예 목사는 엽 1:1-10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사역자들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예 목사는 또 장발장이 두개의 은촛대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평생 가슴에 새기고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것을 역설했다.

설교 후 상임회장 김광호 목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특별기도로 '나라와 통일을 위해', '대통령과 국가지도자들을 위해', '사회, 문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 'WCC와 이단 패망을 위해', '예장연 성령충만과 발전을 위해' '자본위원 변경을 위해' '지도위원 임은선 목사, 자본위원 이원호 목사, 지도위원 고종권 목사, 감사 김태지 목사, 지

도위원 정태익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고분 김기형 목사의 축사, 고분 육옥수 목사의 격려사, 부회계 김미리 목사의 헌금특송, 회계 오선미 목사의 헌금기도 후 2부 순서로 임원취임식이 이어졌다.

상임회장 이강의 목사의 사회로 열린 취임식은 상임회장 차득환 목사의 기도, 이광용 목사에게 대한 대표회장 추대장 증정,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의 인사말씀이 있었다.

이 목사는 2016년 새해예장연에 주신 사명이 실로 막중하다고 전하고 한국교회 정체성 회복을 위해 이단사범 배격을 위해 회원교단 모두 협력하여 귀한 일을 이루어 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상임회장 추대장 수여, 총회장 취임장, 총회장 취임패 수여, 자본위원 위촉장, 위촉패 수여, 지도위원 위촉장, 위촉패 수여, 임원임명장 수여, 각 위원장 임명장 수여, 고분 송현 목사의 새 임원을 위한 기도, 사회자의 광고, 자본위원 조요한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 오찬을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군서교국(국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달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기들을 좀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 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과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 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

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시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 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를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국 국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군선교국 차장 김상기 목사 (010-9040-4562)

보내실 곳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905
e편한세상 103/801

선교지에서 온 편지 - 네팔 라릿풀, 돌라히티에서

“핍박을 오직 감사로만 받을 수 있도록...”

어느 겨울과 다르게 밤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난방시설이 없는 네팔의 일반주택 실내는 귀가 시릴 정도입니다. 두 겹, 세 겹의 옷을 껴 입고 잠자리에 들지만 한밤중 정전이 되면 한기 때문에 절로 눈이 뜨여 방안을 서성거리게 되는 요즘입니다.

한국 서울로 대만한 동장군이 급습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감기 없이 건강한 겨울나기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지난 1월 7일 돌라히티란 마을로 이사하게 되었고 집 단층에는 4-5명이 모일 수 있는 리빙홀이 마련되어 어제 17일 두 번째 주일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어 강습소를 운영하는 폴이란 이들의 정로가 통역, 네팔 전통의상실을 운영하는 마리(장애인)의 가족, 집 관리인 림부양(32), 고아 돌보미 사누의 아버지 와 아들, 마리의 친구 2명, 한국어 학원 수강생 청년 1명, 모두 13명이 찬양, 기도, 자기소개, 교회부흥을 위한 특별기도, 김선교사의 설교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같이 아쉽고 힘든 환경에 부대끼는 사람들이지만, 남다른 신앙의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착한 이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다만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눈에 드러나는 가시적 축복 이전에 천국시민으로서의 기본자질이 갖추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4개월 전부터 시행하던 만화전도지 노방전도가 전도지 품질로 약 2주간 중단되었으나 어제 다시 인쇄된 전도지 1000매가 마련되어 오늘부터 제 하루일과중 하나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받은바 달란트는 다르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전도의 보람만큼 더 큰 것이 없다는 생각은 전도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때문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비록 해석은 생략되지만, 그럼에도 일단 받아주는 젊은이, 학생층이 있으니 아마도 이 나라에 머물 수 있는 날이 언제까지 일지 모르지만 결코 멈추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선교사의 궁극목표는 돈도, 물질도 명예도 아닌 다만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고 저를 영혼이 천국에 이르는 믿음을 심는 일입니다. 90%가 라마교, 힌두교인으로 네팔의 전도란 핍박을 감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핍박은 곧 천국으로 부터 내리는 상급이기 에 다만 감사, 더 이상은 없습니다.

핍박을 오직 감사로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6년 새해에도 동역자님들의 삶의 현장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려 마지않습니다. 할렐루야

2016년 1월 18일
네팔 라릿풀, 돌라히티에서
강상봉 선교사 드림
Reporter Sang-Bong Kim From Nepal
후원계좌 102434-02-163989(우체국)
예금주 강상봉 457001-01-002622(국민은행)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새롭게 다짐하는 전도의 열정!

구세군 군산영문교회(표창윤 담임사관)에서 지난 1월 10일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확장 박영수 목사를 강사로 2016 전라지방 신앙전진대회 세미나가 250여 명의 구세군 사관 정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가서 제자 삼아라!”(마 28:19-20)는 말씀을 전하고 전도현장 동영상 통하여 아파트, 상가, 버스정류소, 새벽전도, 이집출근전도, 육교위전도, 시장전도, 축사에서 맨손으로 아무 물품없이 오직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 초대교회 예수님과 사도들이 사용했던 빌 2:10 전도방법을 통하여 새롭게 도전받는 계기가 되었다.

축사에서 영전기도를 하고 교회까지 불이여 사원장 예배까지 출석으로 연결되는 동영상을 보며 참석자 전원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강사 자신이 개척당시 15만원 월세방에서 시작하여 2개월 14일 동안 604명 전도하여 132명 등록 102명 출석 된 동영상을 병영하여 새롭게 개척하는 목회자들에게 신선한 도전장을 던져 주었다. 마지막 성령사울 시간에는 불지병환자들이 치유되며 성령을 체험(병안)하는 뜨거운 성령충만한 성회였다.

한국교회 목회자 10만명, 평신도 지도자 10만명, 여교역자 1만명(1사2인2명정도) 능력전도지를 발굴하여 미지리교회 파송 세계 미종족 선교사역을 전개한데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 신학생 후원사업을 전개하며 실패타운부지 10만명 목거노인 5년정도를 수용하는 실패타운을 준하는 꿈과 희망을 갖고 힘차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배출(수료자 1만명) 120개 전국지역 55명 세트전도 강사진이 오늘도 현장에 나가 뜨겁게 하느니라 확장에 앞장서고 있다.

12기 세트전도아카데미 안내
♣일시 : 2016. 2. 3 (수) 오전 10시
**대주 수요일 (4주×3개월=12주 과정) 선착순 100명
♣장소 : 평내순복음교회
♣대상 : 전국 초교파, 목회자, 사모, 신학생, 평신도 (등록순으로)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확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할랄식품 바로알리기 전국대책위원회 전북기독교언론인연합회

익산에 할랄식품 테마단지가 들어설 경우

“한국 이슬람화 가속 될 것” 경고

원불교의 총본산과 원불교 제단이 설립한 원광대학이 자리잡고 있는 전북 익산에 70만 평 규모의 이슬람 할랄식품 공장 단지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오일달러라는 거대자본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이슬람화하려는 이슬람 자본가들이 전세계 이슬람 사람들에게 수출할 할랄식품을 대한민국의 기업들과 함께 만들겠다는 그럴 듯한 제안을 박근혜 정부가 덩석 받아들이자 전북 익산에 70만 평이나 되는 땅을 내어준 것이다.

할랄식품 공장 단지가 완성되면 철저한 이슬람 규율에 맞춰 가족을 도축하고 식품을 가공해야 하는 할랄식품의 특성상 훈련된 이슬람 할랄 도축사들을 비롯한 많은 무슬림 근본주의자들이 이곳으로 몰려들 것으로 보인다. 그 숫자가 적게는 수만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까지 이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니, 현재 인구 31만 명에 불과한 전북 익산이 그야말로 무슬림 도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인구의 5% 이상만 되어도 테러를 일으킨다는 무슬림들이 도시의 반을 차지 할 경우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지 심히 우려스러운 가운데, 현재는 익산 지역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할랄식품 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2의 중동 붐을 잡아라!”, “1억 무슬림들의 먹거리를 공급하라!”, “무슬림들이 여행 중 어디서나 쉽게 기도처를 찾을 수 있도록 무슬림 기도처를 늘려라!”, “할랄식당을 늘리고 전국의 식당을 이슬람 친화 정도로 따라서 5개 등급으로 나뉘라!”, “할랄 전용 도축장을 만들어라!” 등 감잡을 수 없는 속도로 정부 주도적인 이슬람화 구호와 시행 지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할랄식품에 대해 ‘바로알아야 한다’는 홍보에 대해 소수의 사람들이 ‘국가정책이어서 어쩔 수 없다’, ‘오히려 역풍을 맞는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한다. 특히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기업의 판로를 넓히고 국가 경제에 유익한 일을 하는데 왜 그 일을 안 타까워하느냐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왜 그 일이 안타까운 일인지 지금부터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1. 익산 인근은 물론 우리나라 축산업은 도산 위기에 내몰린다.

할랄 인증을 받아도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거의 일부분 특수 품목에 제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슬람권의 대량 소비 식품인 소고기와 양고기 달고기나 아제류는 호주 및 동남아와 가격경쟁이 어렵고 국내 소비량도 부족해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할랄단지가 조성되는 익산 인근도 할랄 육류에 잠식되고, 한우 사육 농가의 피해는 물론 하람으로 금지된 우리나라 양돈 농가(6만 2,000가구 1,000만 두 사육)의 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2. 이슬람의 일부다처제와 여성을 성적으로구로 인식하는 관습에 따라 할랄 단지 종사 무슬림 남성들에 의한 우리 여성들의 피해가 속출될 수 있다.

무슬림 남성들은 4인까지 아내를 둘 수 있다는 무함마드 언행록 하디스 규정에 따라 본국에 처를 두고 총각행세를 하면서 한국의 여성들과 결혼하여 여성들의 불행은 초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또한 목사의 무슬림 남성들은 강간을 죄악시 하지 않는 관습에 따라 한국 여성들이 위협에 처할 수도 있다.

3. 할랄도축은 이슬람식사에 따라진인하게 도축되어 동물 복지 위반이며 우리의 도축법과도 상충한다.

할랄 육류는 종교적 도축방식(다비야)에 의한 것일 뿐, 건강과 안전식품과는 전혀 무관하다. 도축을 진행할때 살아 있는 상태에서 목동맥을 자른다. 참수를 연상케하는 잔인한 도축방식으로 유럽 여러나라에서는 이 할랄도축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FTA 체결 등으로 국제 무역규정 및 세계동물보호기구(OIE)에서 권고하고 있는 복지적 동물 도축규정을 수용하여 기절사지 상태에서 도축한다. 그러나 할랄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잔인한 다비야도축 전용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할랄 인증은 위생이나 신선도, 인체에의 안전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슬람의 사리아를 준수했느냐가 관건이다.

4. 할랄은 종교를 넘어 인종차별을 둘러싼 경제적 이해도 곳곳에서 충돌하는 양상이며 국내 이슬람 신도약 3만 5천명에게 할랄은 취업 통로이다.

할랄 음식은 이슬람의 제사 음식으로 非무슬림인 우리 국민들에게 먹거리로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은 이슬람화를 강요하는 행위이다.

무엇보다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알라는 이슬람 족속 가운데한 부족이 섬기는 신이다. 정부는 현재 금지된 할랄 식품의 광고를 2013년도에 승인하고 축산물의 할랄 인증 표시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특정 종교의 음식을 정부가 이미 홍보하고 있고, 향후 상업적 홍보를 허용하는 것은 종교 차별적이고 나아가 이슬람을 비호하고 한법을 위배한다. 특히 할랄 단지가 조성되면 도축인력 근로자는 무슬림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무슬림인구 대거 유입이 불가피하게 되며, 이슬람 사원이 건립된다. 사원이 건축되면 무슬림 집단거주지(예토)가 형성된다. 알자리라창출(도축사)도 무슬림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지역민들의 알자리라창출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비할랄 식품과 접촉한 할랄 식품은 하람으로 취급한다.

비할랄 식품과 접촉한 할랄식품은 하람으로 취급되어 주변과 접촉한 격리를 요구하고 있어 우리의 일반산업은익산에서 도태될 위기에 놓인다.

할랄식품 제조공장 반경 5km내에 하람시설을 금지하고 있어 일반 영업과 비할랄식 영농이 불가능하게 된다. 할랄단지가 근무하는 내국인은 돼지고기와 술은 물론 비할랄 식품을 섭취도 판매도 금지된다. 단지 내는 할랄식당만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천만 원씩 투자하여 할랄 인증만 받으면 17억 무슬림들의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일확천금 할 수 있다는 헛된 꿈은 버려야 한다.

무슬림 사찰단들이 할랄 도축시설이나 음식물 가공 시설을 조사하고 보고서에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무슬림들의 전략은 포교이다. 할랄 인증서를 획득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얻은 할랄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사실은 알고 시작해야 한다.

6. 영국 등 유럽의 피해
영국에는 할랄 도축인으로 파키스탄인 5,000여 명이 일하며 종사하고 있다. 무슬림 집단 거주지(예 토내 이슬람 사원(모스크)는 9.11 테러와 영국 런던 테러와 프랑스 테러에서 볼 수 있듯이 테러모의 현장이 되고 있다.

유럽 사회의 대표적인 문제는 무슬림 게토지역이 형성되어 불법체류자들의 은신처 제공과 동시에 이슬람극단주의자들이 일하며 암약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되어 범죄와 테러의 온상이 되고 있다.

공권력이 힘을 못 쓰는 즉, 경찰이 힘을 못 쓰는 무슬림 인구 우세지역이 늘고 있고, 무슬림 청년들이 자정단을 만들어 비무슬림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소위 ‘출입통제지역(No-Go Areas)’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곳일수록 치안이 불안하고, 현지 백인들과 기업들도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실업이 증가해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인구 5,500백만 중 무슬림 인구가 불법체류자 포함 800백만인 프랑스는 전국적으로 751개 지역을 ‘민감한 도시지역’으로 지정했고, 파리와 마르세유 등 15개 지역을 ‘우선 안전보장 지역’으로 선정해 경찰력을 강화하고 있다.

7. 할랄 지원은 근본주의 이슬람 포교 및 지하드 후원금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제공된 돈은 이슬람 확산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이슬람 기관은 수입의 2.5%를 자카트(Zakat)라는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돈의 97%가 사용처가 꾸란 9장 60절에 나온다. 그 중에 다섯 번째 언급된 ‘알 무알리파 쿨루부’라는 것은 포교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여섯

번째 ‘알 리카브’는 전쟁포로나 노예 석방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포된 지하드 용사들의 석방 작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피 싸비릴라’는 직접 노골적으로 지하드 전사들을 돕거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사는 것을 말한다.

할랄인증을 받기 위해서 수천만 원씩 소요되는 데, 결국 그 돈이 테러 자금으로 사용된다.

8. 할랄과 하람은 언제 뒤바뀔지 모르는 가변적이며 할랄 인증은 이슬람 율법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슬람의 율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할랄과 하람은 언제 뒤바뀔지 모르는 가변적이며, 할랄 인증은 이슬람 율법에 관련된 문제이다. 할랄식품은 사육과정, 도축방법, 제조, 저장과 유통과정 등이 현재 국내 일반 축산물 생산과 전혀 다르다.

이슬람 국가나 무슬림 집단거주지(예 소 400만명 이상)가 형성되어 있는 국가를 제외한 세계 어느 나라도 정부가 나서 할랄식품을 홍보하고 할랄 전용 테마단지를 조성한 사례가 없다.

이슬람 국가의 종교적, 문화적 독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도 할랄에 대해 제대로 연구한 사례가 없다.

정부의 이러한 무분별한 할랄 전용단지 조성 정책은 할랄 인증분과와 수요, 사회적 패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과 전신행정적인 발상으로 경제적 이익은 커녕 이슬람에게 무방비로 문을 개방하는 것이다.

9. 청아굿푸드의 사례
강원도 소재 청아굿푸드의 유재주 대표는 인증 취득까지 2년 넘게 걸렸고 비용도 정부지원 포함해서 2,600만 원이나 들었는데 공장 내부에 식당을 개업하지 못하고 임직원들의 술과 돼지고기조차 먹지 못하게 되어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한다.

것질류에 들어가는 온갖 양념 및 부재료와 수입 원료까지 모든 첨가물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내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해서 결국 말레이시아의 자킨(ZAKIM)의 인증을 받지 못하고 무말랭이와 양념젓임에 대해서만 인지도가 낮은 이판카(IPANCA)의 인증서를 받기는 했지만 주력품목이 아니라서 활용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농어민신문 2015.3.20)

10. 무슬림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슬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테러의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피해망상 증세라고 주장한다.

유럽을 보면 무슬림들에게 불편함 없는 최대한의 복지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은 늘어나는 인구를 무기 삼아 다양한 종류의 과대단 특혜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나 국민들은 곤혹을 치르고 있는 형편이다.

쇄니된 무슬림들의 잔인한 테러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표가 필요한 정치인들은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홍보해 주면서 비위를 맞춰주고 있다.

그러다가 결국 유럽에서 이슬람 율법으로 재판하는 사아 법정까지 허용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 세계 17억 무슬림들은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행동모범을 철저하게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테러범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스스로 헌신된 무슬림들로서 꾸란과 무함마드의 행동모범대로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인간의 규칙을 보이는 IS를 지지하는 이슬람 단체들이 급증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지원자들이 시리아와 이라크로 몰려가고 있다. 지금 지구촌 어디를 가든지 무슬림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곳마다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오일 달러를 탐내어 테러범들을 포함한 불특정의 무슬림들을 국가적으로 장려 및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인 재앙과 멸망을 초래한 것과 다를바 없다.

제3차 찬양인도, 교회음향 1일 세미나 열려

홀리드립찬양학원(학장 임교원)은 매년 1월에 한국교회들을 위하여 찬양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제3회로 열리는 세미나는 1월 25일(월) 하루동안 전 호동 소재 동교 신학원에서 열린다.

지난 1, 2차 세미나에 전국 곳곳에서 많은 교역자들과 찬양인도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참석자들로 하여금 많은 도움이 되어서 감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미나 강사로는 한국교회에서 오랜 동안 위임리더로 사역해온 임교원 학장과 권혁도 목사

등이며 예배현장에서 꼭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이해하기 쉽게 강의되어진다. 참가비는 2만원이고 중식이 제공된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감동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찬양인도의 방법과 원칙을 소개하며, 효과적인 찬양인도법과 교회음향기기 사용법에 대해 공급했던 내용들을 전문 사역자들이 참석자들과 실제 필요한 내용들을 분담도 하고 또는 간단한 연주법도 실제로 보여주기도 하며 강의한다.

더불어 음향기기를 직접 가지고 실습도 병행하는 강의형식을 통해 자유롭고 쉬운 방식으로 강의하고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익한 시간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어진다.

임교원 학장은 “지난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기쁘고 보람이 된다”며 “앞으로 방학기간을 통해서라도 4차, 5차 지속적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겠다”고 다짐하였다.

한편 현재 홀리드립찬양학원 2016년 1학기 신입생을 모집중이다.

http://cafe.daum.net/holygve
문의: 02-484-0691

한국교회 정체성 회복, 바른 복음전파 위해 헌신 다짐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2016년 신년하례감사예배



신년사
대표회장 이용주 목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이용주 목사)는 지난 11일(월) 오전 11시 은혜와진리교회(담임 조용목 목사) 영등포성전에서 2016년 신년하례 감사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한 해를 하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맡겨주신 사명감당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사무총장 김용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예정합동보수총회장 이위 목사의 개회기도, 예정개혁 합동 총무 구광희 목사의 성경봉독, 동협의회 고분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고전 2:13-14 말씀을 본문으로 '신령한 분별'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신앙분별의 기준이며, 우리의 정체성이며 그리스도

인이려면 성경대로의 성경관과 기독관이 분명해야 한다"고 전하고 "기독교단협의회는 신앙관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며 종교다원주의, 세속화를 배격하고 성경과 성경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알고 나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조 목사는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함"을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동협의회 대표회장 이용주 목사는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한 해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표회장의 직임을 감당해 나갈 것"을 밝히고 "회원교단간 친목과 이단 사교 교회침투방지, 교회권익 보호 공동대처, 교역자 지질향상,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슬람의 침투 저지, WCC 종교다원주의와 반기독교적인 단체들의 교회파괴 행위에 대한 대응을 위해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특별기도로 '국가와 민족복음화를 위해, 본회발전을



설교
고분 조용목 목사



식사기도
회장단 진동용 목사



사회
사무총장 김용도 목사



대표기도
회장단 이위 목사



특별기도1
회장단 이성재 목사



특별기도1
법인이사 이고의 목사



성경봉독
개혁합동 총무 구광희 목사

위해 예정고신개혁 총회장 이성재 목사, 법인이사 이고의 목사의 주례별기도 후 대표회장 이용주 목사는 각 분과위원장에게 취임축하증을 전달했다.

계속해서 예정합동진리 총무 이상용 목사의 한금기도, 사회자의 광고가 있는 후 조용목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 회원들은 한국교회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바른 복

음전파를 위해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회원들은 오찬을 함께하며 올 한해 한국교회의 막중한 과제를 힘을 모아 풀어갈 것을 다짐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16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고영권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운영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김임복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010-5614-2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임종달 목사)

예하성전북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금 제도, 본 교단 총회 신학, 목회대학원 진학, 목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
- T E L : (063)251-3978~9
- F A X : (063)251-3980
- e-mail : sunshalom@naver.com



(학장 김상웅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학장 오일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여 목사 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학장 이규호 목사)

예하성강원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운영
- 사이버신학과정 운영 중
- 주 소 : 강원도 홍천군 회창로 87
- T E L : (033)434-3136, 010-7504-0172
- e-mail : li4499@naver.com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목양의샘

정형기 목사 // 대소우리고회

일하는 자의 복

(잠 14:4)

오늘 본문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있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하면 편안하고 사람들과 다룰 일도 없고 시험에 들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봉사하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많이 많습니다. 너무 설칩니다. 기도도 안한다. 믿음도 없다. 신앙생활이 왜 저러냐 하면서 말이 많지만 그러나 일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처럼 일하는 자에게 복 주십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살후 3:10)

일 안하면 복이 없고 죽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봉사는 전혀 안하고 주일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감사 헌금은 물론 십일조도 드리지 않습니다. 저녁예배는 아예 빠지고, 수요일예배는 건너뛰고, 금요일예배는 쉬고 새벽예배는 피곤해서 못 일어나고 그러다보면 주일날 결혼식이나 급한 불일 있다고 하며 주일도 가끔 빠집니다. 보니 아예 교회를 못오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날 보면 안보입니다. 알아 봤더니 교회를 안 다니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하는 자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서 예배 때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일하는 것입니다. 주일 낮예배, 오후예배, 수요일기도회, 금요일예배, 새벽기도회 열심히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야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며 신앙이 성장하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 열심히 하면 한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

죽도록 충성하고 복 받은 아브라함은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와 이름 붙였더라”(창 12:7,8;13:4,18)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손대대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 바라보며 일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은 것처럼 일을 안하면 편할 것 같지만 소처럼 일하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북한은 밤에 이불 뒤집어쓰고 성경을 보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것도 걸리면 정치수용소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천국복음을 알지 않으려고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슬람 종교는 기독교인을 찾아내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초에 11명의 기독교인들을 찾아내 총살해서 죽인 일이 있습니다. 눈을 가리고 총살하기 전에 누구든지 예수를 인정했다고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한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총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죽여라 어디서 발견되든지 살해하라”(역관 5:11)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면 죽지 않고 살게 되는데 왜 이처럼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두가지 이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1)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영적 생활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롬 8:6-9)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죄도 흠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피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모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 분이 나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 무궁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도 하는 것입니다.

2)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다름이로서는 구원을 얻을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고 하였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천국도 못갑니다. 구원 얻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요즘 정통교단의 대 교회 목사들이 예수 아니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범신론, 다신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나 JMS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것만이 이단이라는 예수 아니라도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모두 이단인 것입니다. 성경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고 믿지 않는 이단들인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한국교회에 이름이 크게 알려진 사람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성경말씀대로 이들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총에 맞아 죽지도 않고 눈과 입을 비느질 당하지도 않는데 왜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 고통과 순교와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왕 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갈 1:10)

이 땅에서 잠깐 십자가 고통, 잠깐 희생이 지나면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육신의 편안함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간다면 한평생 헛수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핍박과 고난도 죽음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1 제자 중에 의심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평생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날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성도 중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보여줘야 믿겠다고 하는 도마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지 말고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정을 축복할 때가장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온 가족이 안 믿고 자녀가 교회 나온다면 그 자녀가 영적 가장인 것입니다. 저도 복을 많이 받았는데 저의 아버지를 통해서 자손대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은 노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므로 하나님은 어른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너희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라..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살되도 장수하리라”(엢 6:1-3)

하나님은 자녀들이 효도하는 것을 보고 복을 주시는데 그 가정은 어른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어른이 없는 교회나 가정은 복을 못받는 것입니다. 집안에 노인이 없으면 빌려와라 그리하면 재물이 임하지 않는다 고 하는 그리스 격언이 있습니다. “노인 없는 것이 저주”(삼상 2:31-32)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그 교회 그 가정에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켜 어른을 잘 모시고 살아 천대까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멘-

사설

‘할랄식품단지’ 조성 즉각 중지해야 한다!

전북 익산지역에 전 세계 20억 여 이슬람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외화를 벌어들일겠다는 취지에서 이슬람 신자들이 먹는 특수 식품인 이른바 ‘할랄식품’ 생산단지가 대대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이것은 한국에 이슬람 종교의 급속한 확산 기저가 될 것으로 확실히 되고 있어 기독교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것은 비단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심히 우려해야 할 사태임을 직시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정부는 통상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한 이 같은 시책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종교로 인한 테러와 각종 폭력과 사회불안이 날로 확산되고 있으며,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급진 이슬람테러 집단인 IS(이슬람국가)의 무차별 테러 행위가 사해에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으로까지 파고들어 이슬람 종교의 테러 행위에 한국도 시간문제라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익산시에 조성하고 있는 ‘이슬람 할랄식품 단지’ 중지를 촉구하는 익산지역 기독교협의 호소문을 보면 대략 아래와 같으며 이는 전 세계 한인 기독교인 사회에 단지 조성 중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으로 확산되고 있기도 하다.

“익산시 왕궁면에 ‘이슬람 할랄식품’ 공장을 약 50만 평을 짓는다. 그러나 단순히 공장만 짓는 것이 아니다. 공장을 짓는 동시에 무슬림 사원과 무슬림병원, 무슬림학교, 무슬림 아파트 등,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 엄청난 대규모의 단지를 짓고, 익산에 있다고 하여 익산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을 지은 후, 해외 이슬람 사람들을 고용한다고 한다. 그들의 목적은 대한민국이 이슬람화 되는 것이 목적이다. 앞으로 이 단지가 익산에 만들어지면, 대한민국이 이슬람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만약 대한민국에 대규모로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오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사람들은 대한민국 여성들이다. 이슬람교리에 어긋는 4명까지 둘 수 있으며, 이슬람 사람들이 본국에 본처를 놔두고 한국에서 종가 행세를 해도 막을 길이 없다고 한다. 또한 아내가 잘못을 하면 구타도 가능하고, 이혼하지고 하면 막을 길이 없다고 한다. 할랄식품 공장 추진이 무산 되도록 서명하고 기도해야 한다. 내 지역, 내 지역 파질 때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이슬람화되면 우리 한국도 최근 IS 피해를 입었던 프

랑스 파리처럼 테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할랄식품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이미 할랄식품 기술자 등 이슬람 신자들 수백명이 입국 완료했다고 한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슬람 종교의 폭력성이다. 요즘 사해 벽두부터 극단 이슬람 무장세력 IS의 테러 공격으로 지구촌 곳곳이 피로 물들고 있다. 사해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 IS의 도발은 이라크에서 시작했다.

1월 12일 이라크 바그다드의 한 평화로운 쇼핑몰에 폭탄을 실은 차량을 폭발시키고 총을 무차별 난사했다. 쇼핑객 18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50여 명이 다쳤다. 비슷한 시간 터키의 관광객 술탄 아흐메트 광장에서도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독일인 여행객 10명이 죽었고, 한국인 1명을 포함해 10명 넘게 부상을 당했다. 바로 다음 날에는 주 아프리카-나스탄 파키스탄 영사관 앞에서 도 3 명이 자폭테러를 일으켜 경찰관 7명이 사망했다. 하루 뒤 1월 14일엔 인도네시아의 도심 한복판에서 연쇄폭발과 총기 난사로 24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이산불 테러 이틀 만에 터키 디야르바키르에서 또 다시 경찰 청사와 주택을 파괴하는 폭탄 테러로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금 국회는 테러방지법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어 테러 수사와 예방에 가장 취약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한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우리 정부는 오히려 이슬람 세력 확장 기저를 만들고 있는 셈이니 국민들이 불만해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 이슬람 신자들을 상대로 식품을 수출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해 박근혜 대통령 중동 방문 이후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할랄식품 생산 단지 조성에는 어떤 부작용이 따를 것인가 정도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종교 지분관들이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정책을 진언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다 국내에서 돌발 이슬람 테러라도 일어나다수 국민들이 살상 당할 경우 모든 책임은 청와대의 총책으로 국내에 이슬람 세력이 확산되고 있음이 중요 원인이라고 국민 지탄이 쏟아질 것이다. 정부는 즉시 할랄식품 단지 조성계획부터 중지하고 프랑스를 비롯한 구미 각국의 예에서 보듯, 국민이 납득할 이슬람 대책을 제시하여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몽목 목사
-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경영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기독교 장묘문화에 부는 신선한 바람!!

1. 기독교 장례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 최근 화장률의 증가(79.6%)로 각 종교단체에서 장례문화의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기독교의 경우 타 종교에 비해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대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장례문화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 한신교회, 성민교회, 강남교회, 지구촌교회, 주님의교회 등 30여 개 교회가 사설납골당에 전용관을 구비하여 교인들을 한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백** 교회는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2007년 11월 예배당 지하에 1,500기를 봉안할 수 있는 추모관을 설치 운영하여 장례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설추모관내 교회전용관)



(백** 교회 입구 및 내부)

2. 우리는 왜? 추모 시설을 기피할까요?

- 유골의 변질과 부패로 별레가 생기고 냄새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추모관은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 사설 봉안당의 냄새(방향제)와 산만함만을 생각하십니까?
- 꼭 필요하지만 내 주변에 있으면 생활에 불이익을 초래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3. 우리 교회 추모시설을 이렇게 짓는다면~~~

- 우리교회 기도원이나 수련원에 있는 추모관이면 좋겠습니다.
- 유골의 부패와 변질 없이 항상 청결하고 깨끗하게 보존되는 추모관이면 좋겠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등에 교인들과 함께 추도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기존의 사설봉안당과는 차별화된 우리 교회만의 맛을 낼 수 있으며 건축비가 경제적이며 관리운영비가 저렴하면 좋겠습니다.

4. 우리 교회 추모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 종교시설 내 추모관 설치를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어, 우리교회 내 또는 우리교회 기도원이나 수련원에 설치가 용이합니다.
- 교회 건축이나 리모델링 시 추모관도 함께 설계가 가능 합니다.
- 주변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봉안당 조성 비용과 운영자금의 조달을 여러 교회의 신자들과 함께 해소할 수 있습니다.

5. 전용 추모관 건축의 기대효과!

- 개척교회는 교회건축 시 추모관의 선 분양을 통하여 건축비 조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주변의 새로운 사람들도 전도되어 많이 늘어나 교회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기존 교회는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꾀하고 교인들에게는 좀더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한다면 어찌 교회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 것으로 검토하여 받아들이고 교회를 강건하게 교인들의 삶을 좀더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장묘문화를 잘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타 종교보다 봉안당 인 허가 용이한 수련원이나 기도원이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교회 전용추모관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美空 Space Aesthetics 學問 공간미학



K 코리아에프엔디 F&D Korea Funeral & Development

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23
대표전화 : 1899-1659 / FAX 032)512-0925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6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년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 용지 2매 이내)-신입생
- ⑥ 반명함판 사진 4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2015. 12. 21(월) ~ 2016. 02. 18(목)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2016. 02. 18(목)
- ③ 합 격 자 발 표 : 2016. 02. 19(금)-개별통보
- ④ 전 형 료 : 20,000원(계좌로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총회목회대학원 졸업 후 목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 ④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5. 12. 21(월) ~ 2016. 02. 18(목)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www.agpgs.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6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사안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하여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과 정	수업 년 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2년4학기 (40학점)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③ 추천서
- ④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⑥ 가족관계증명서
- ⑦ 반명함판 사진 4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 2015. 12. 07(월)부터
- ② 원서접수 : 2015. 12. 28(월)~2016. 02. 19(금) 17:00시까지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 나길 8(목대원 교학처)

- ④ 서류심사 및 면접 : 2016. 02. 22(월)
- ⑤ 합격자발표 : 2016. 02. 23(화) 개별통보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수여한다(교단 인정).
- ② 본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실시한다.
- ④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행정실 : 02)2677-0692~3

- 원서접수 : 2015. 12. 28(월)~2016. 02. 19(금) 17:00시까지
- 입학상담 및 문의 : 행정실 02)2677-0692~3

홈페이지: www.agtc.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6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주·야간) 모집**

● 설립목적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 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년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4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 2015. 12. 07(월)부터
- ② 원서접수 : 2015. 12. 28(월)~2016. 02. 19(금) 17:00시까지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 ④ 필기시험 및 면접 : 2016. 02. 22(월), 총회신학교
- ⑤ 합격자발표 : 2016. 02. 23(화), 개별통보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행정실 : 02)2677-0692~3

- 원서접수 : 2015. 12. 28(월)~2016. 02. 19(금) 17:00시까지
- 입학상담 및 문의 : 행정실 02)2677-0692~3